JEONJU UNIVERSITY

전주대신문

jnbs_news
JNBS news.jj.ac.kr

제926호 1965년 5월 15일 창간 수퍼스타를 키우는 곳(The Place for Superstars)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 지난 9일, 박진배 총장을 포함한 우리 대학 구성원이 힘을 합쳐 서서학동 주택가에서 연탄을 나르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박헌빈 기자)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전체 선본 당선으로 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개표참관인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손민기 기자)

지난 12월 5일부터 3일간 진행된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전체 후보자 당선으로 마무리되었다. 내년도 학생자치기구가 구성되는 단위는 7개(총학생회, 중앙동아리연합회, 인문대학, 경영대학, 문화융합대학, 문화관광대학, 사범대학)이다. 나머지 단위(사회과학대학, 의과학대학, 공과대학, 미래융합대학)는 내년 3월에 재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분	선거인(단위:명)	투표인원(단위:명)	투표비율
총학생회	9,761	3,923	40.19%
중앙동아리연합회	95	50	52.63%
인문대학	681	289	42.44%
경영대학	1,442	582	40.36%
문화융합대학	1,533	717	46.77%
문화관광대학	991	401	40.46%
사범대학	780	335	42.95%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투표율

SIGNAL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는 총투표수 3,923표(찬성 3.386표, 반대 179표, 무효 358표)로 당선되었다. YUEIL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운동본부는 총투표수 50표(찬성 43표, 반대 5표, 무효 2표)로 당선되었다. 유일하게 경선(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이었던 문화융합대학 단위는 득표율 9.22%P 차이로 PAGE 문화융합대학 선거운동본부가 당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교내 홈페이지(공지사항(일반)-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안내(최종))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총투표수	찬성	반대	무효*	투표율	당선 여부
SIGNAL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3,923	3,386	179	358	94.97%	당선
YUEIL 중앙동아리 연합회 선거운동본부	50	43	5	2	89.58%	당선
SIGNAL 인문대학 선거운동본부	289	271	7	11	97.48%	당선
SIGNAL 경영대학 선거운동본부	1,442	548	8	26	98.56%	당선
SIGNAL 문화융합대학 선거운동본부	1,533	315		23	45.39%	–
PAGE 문화융합대학 선거운동본부		379			54.61%	당선
SIGNAL 문화관광대학 선거운동본부	991	373	16	12	95.88%	당선
SIGNAL 사범대학 선거운동본부	890	315	9	11	97.22%	당선

▲2023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무효에 지지후보 없음이 포함됨)

한편, 12월 5일(월) 진행된 개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 는 유효표 계산에 실수가 있어 당시 모든 선거운동본부가 낙선 처리되는 우발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과 지난 학생자치기구장 선거를 참고해 개표를 정정했다. 이에 중선위는 "혼란을 빚게 한 점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행복을 나눈 연탄 봉사활동

▲ 박진배 총장과 우리 대학 구성원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사진: 김은솔 기자)

지난 12월 9일(금) 우리 대학 총무지원실 주관으로 서서학동 일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박진배 총장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 약 50명이 참여해 서서학동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 세대에게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우리 대학은 지난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5번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최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단체로 진행하는 연탄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번 연탄 봉사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우리의 사랑과 땀으로 일궈낸 뜻깊은 활동이었다.

서서학동 일대는 가파른 골목과 산길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1인 가구 또는 노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어 스스로 연탄을 운반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전주시에서 진행하는 연탄 봉사활동은 주로 서학동, 전미동, 동산동 등의 지역에서 이뤄진다.

이번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진배 총장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사해준 덕분에 전혀 힘들지 않았고 재밌었다"라며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우리 대학 구성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보도: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촬영: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박진배 총장,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장 선출

▲ 박진배 총장이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북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사진 : 대외협력홍보실)

전북지역 소재 4년제 대학교의 총장들로 구성된 전북지역대학교총장협의회가 12월 8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박진배 총장이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7개 권역 대학총장협의회연합에서 전북권 대표 총장직도 겸직하게 된다.

박진배 총장은 "전임 회장이신 박맹수 원광대학교 총장님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전임 회장께서 이룩한 성과 위에,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역대학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습니다"라며 "지역과 대학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혁신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대학교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유치와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특별법 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대학교-산업체 협력 강화, 국가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혁신 인재 양성, 전북도민의 평생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 지역대학교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대비한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현안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 대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박정규 기자(angks2996@jj.ac.kr)

박진배 총장, 전주 지역 고등학교 특강 진행

▲ 박진배 총장이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하여 특강을 진행했다.(사진: 손민기 기자)

박진배 총장은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전주 지역 고등학교 4곳(전주영생고등학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전주신흥고등학교,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을 방문하여,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과 성공', '4차산업혁명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과 드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먼저, 박진배 총장의 4천여 회가 넘는 학생 상담을 통해 많은 학생의 삶이 변화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행복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학생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신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점을 토대로 명확한 인생 목표를 세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다음으로는 박진배 총장의 전공 분야인 제어공학과 인공지능, 로봇, 드론을 토대로 한 '4차산업혁명과 로봇', '인공지능과 드론'이라는 주제로 초연결성·초지능화·융합화에 기반을 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특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준비한 자의 것이며, 준비가 기회를 만나면 행운을 얻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불확실한(Mystery)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여 자신의 이야기(Mystory)를 만들어가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인공지능, 코딩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주동신교회와 전주동현교회, 전주새중앙교회, 익산기쁨의교회, 전주더온누리교회, 전주샘물교회, 전주영생교회 주일 청소년예배 특강도 진행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성공요소 5가지를 소개하며, 구하고(기도), 찾으며(방법), 두드리는(실행) 것의 중요성을 개인 간증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에 방문한 박진배 총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사람은 능력과 잠재력 있는 여러분 같은 고등학교 학생들이다"라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여 본인이 품은 큰 꿈을 이룰 수 있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제공: 총장 비서실 김승아 계장
편집: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천원의 아침밥 감사 행사 '후배가 준비한 밥心'

▲ 배지훈 총학생회장 당선자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손민기 기자)

지난 19일 학생회관 1층에서 '후배가 준비한 밥心' 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지난 10월 진행된 '천원의 아침밥'의 후속 행사로, 기부에 동참해 준 선배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 주요 보직자와 가족들, 선배의 만행에 기부한 선배들이 참석했다.

행사 시작 전 포토존과 체험 공간에서 체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추억의 달고나 만들기와 붕어빵 나눔, 옛날 포스터와 물품을 전시한 추억상회 등이 운영됐다. 학생회관 1층 카페에서는 옛날 카페라는 이름으로 선후배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소 공간을 제공했다.

학생 식당에서는 우리 대학 기타 동아리인 '알함브라'에서 식사 전후 기타 연주를 뽐냈다. 이환 학생회장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박진배 총장과 임정엽 총동문회장의 환영 인사가 진행됐다. 이후 영상 시청과 함께 한여명 부총학생회장과 배지훈 총학생회장 당선자, 김주형 부총학생회장 당선자가 후배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배지훈 총학생회장은 "후배들이 아침을 거르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기부해주신 선배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라며 "내년도 학생회가 선배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식사는 학생회관에 입점한 식당의 도움을 받아 옛날 돈까스와 우동 정식, 소불고기 덮밥과 시래기 된장국 정식이 제공됐다.

한편, 월 만 원의 정기기부로 4명의 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선배의 만행은 올해 8월부터 현재까지 148명의 기부를 통해 26,500,000원에 달하는 기부액이 모였다. 또한, 천원의 아침밥 혜택을 받은 학생은 6,814명에 달한다.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이랜드-전주대 산학협력 교육, 비스타(BESTar) 21기 수료식

우리 대학은 이랜드(회장 박성수)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BESTar 프로그램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12월 15일에 21기 수료식을 진행했다.

BESTar 프로그램은 지난 2012학년도에 기업과 대학이 함께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기업우수인재육성과정'(3학점)을 개설하여 이랜드 임직원들이 직접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왔다.

비스타는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실무현장의 이야기를 이랜드그룹 임직원들에게서 직접 듣고 커리어개발과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강의 주제는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부터 프로젝트 수행의 의미와 원리, 그리고 외식·호텔·패션산업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방법까지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책으로 성장하는 방법', '나의 로드맵 그리기', '고객가치 중심 스토리텔링', '미리 써보는 자기소개서', '프로젝트로 일하는 방법', '커피 앤 베이커리', '호텔 브랜딩', '유통점 스토리텔링', '비즈니스 의사소통' 등이다.

특강 강사에는 이랜드그룹 계열사 ㈜이앤씨월드 우상배 대표, 이랜드 인재원 김용채 상무 외 이랜드건설 이재욱 팀장, 켄싱턴월드F&B 조성우 부문장, 이랜드리테일 한민정 팀장과 김시영 팀장, 이랜드리테일 재무 조훈현 팀장, NC WAVE 광주점 고재은 지점장, 켄싱턴리조트 충주 변종원 총지배인 등이다. 특히 본교 동문인 ㈜이앤씨월드 우상배 대표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비즈니스 현장과 전설의 서비스 경영기법을 들려주었으며, 비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이랜드그룹에서 근무 중인 이랜드파크(호텔법인)의 유수민 파트장은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는 3~4학년 후배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공유하며 멘토가 되어 주었다.

이번 비스타 21기에는 경영학과 2명, 물류무역학과 4명, 외식산업학과 2명, 패션산업학과 7명, 호텔경영학과 2명, 행정학과 1명, 영화방송학과 1명, 물리치료학과 1명, 산업디자인학과 1명, 경기지도학과 1명 총 22명이 수강했다. 기말 과제로는 비즈니스 현장을 방문하여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매출 증대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랜드 글로벌 조훈현 CFO님의 팀별 피드백과 Q&A 시간으로 프로젝트 밀착 지도가 이루어진 것도 이 프로그램의 특별한 점이다.

지난 12월 15일(목)에는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수료식이 열렸으며 최우수팀 'NEW BALANCE NC웨이브 전주객사점의 매출 UP'(김선정, 김해빈, 이윤서, 장예진)과 우수팀 '피자몰 NC 전주점 메뉴 구성 개선을 통한 네이버 평점 4.5 추진 방향'의 발표가 있었다. 이상행 전주대 학생취업처장은 "비스타 프로그램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형 비즈니스 인재를 양성하는 모범적 프로그램이다. 지난 10년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질 높은 취업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스타 21기 수료생 김선정(패션산업학과)은 "패션산업학과 전공수업에서도 팀플레이의 경험이 있지만 이번 비스타 수업에서는 현장을 기반으로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도출하고 솔루션을 제시하였으며 이랜드 팀장님으로부터 직접 피드백도 받게 되어 취업 후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문제해결에 자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사 제공: 패션산업학과 박현정 교수
편집: 박헌빈 기자(hans8150@jj.ac.kr)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자치기구 정기감사 진행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2022학년도 2학기 학생자치기구 정기감사 진행됐다.

지난 8월 중간 감사 당시,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의 위원 모두가 사회과학대학 소속으로만 구성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고, 중감위는 정기감사 때 해결 방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2학년도 정기감사는 공개 감사로 전환해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공개 감사란, 본인의 소속 자치기구의 학생회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직접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기타 자치기구(총학생회, 도서관자치위원회, 중앙동아리연합회, jj리그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전체 재학생에게 감사 권한이 주어진다. 예로,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우일 경우 기타 자치기구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의 감사 권한이 있는 것이다. 공개 감사 기간에는 네이버폼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질의로 남길 수 있다.

공개 감사 이후 중감위의 개입 감사가 진행됐다. 개입 감사란 공개 감사 기간에 등록된 질문을 중감위에서 각 자치기구에 전파해 각 자치기구가 질문에 대한 답변과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사실 여부를 파악해 이를 최종 공표한다.

이번 정기감사는 공개 감사의 특성에 맞춰 감사 시행세칙의 효력을 없앴다. 따라서 감사 중 문제 사항 발생 시 중앙감사위원회의 징계 부여 권한을 없앴다. 다만, 중앙감사위원회에서 문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변경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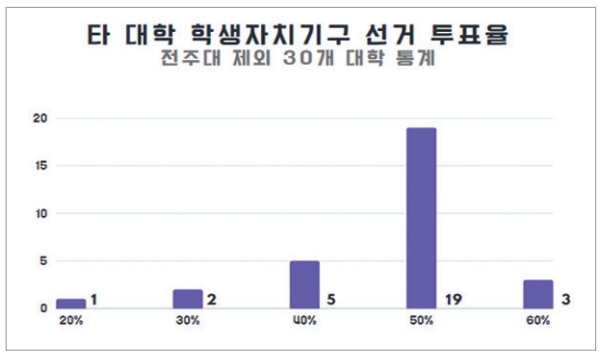
2022학년도 2학기 공개 감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날짜	내용
12/17(토)~12/19(월)	자치기구 학생회비 사용 내역 제출
12/20(화)~12/21(수)	학생회비 사용 내역 전파와 공개 감사 시작
12/22(목)~12/23(금) 15시까지	질문에 대한 자치기구 증빙자료 준비 기간
12/23(금) 15시부터	개입 감사 시작
12/24(토)	감사 결과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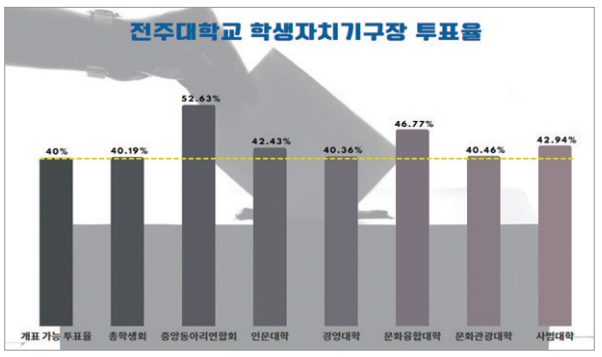
개입 감사 결과 시각디자인학과에 접수된 질의를 제외하고 특별한 점 없이 마무리됐다. 접수된 질의는 시각디자인학과에서 체육대회 후 받은 상금의 행방에 대한 것이었다. 시각디자인학과 학회장은 "상금은 학과 재학생회비로 귀속되었다. 2학기 MT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MT가 취소돼 내년 이월금으로 처리됐다"라고 말했다. 첨부된 증빙자료에서는 상금을 이체받은 내용과 잔액 등을 보여줬다.

박정규 기자(angks2996@jj.ac.kr)

타 대학에 비해 저조한 투표율... 2023년 학생자치기구 선거



▲타 대학 학생자치기구 선거 투표율 (제작: 최건 기자)



▲2023학년도 전주대학교 학생자치기구 투표율 (제작: 최건 기자)

지난 7일에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종료됐다. 개표 결과 SIGNAL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40.19%의 투표율, 94.9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선거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학생회가 탄생했지만, 투표율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 학생자치기구장 총학생회선거는 투표율 40%를 넘기지 못해 3차 연장 투표를 진행했다.

본교 학생자치기구 선거는 40% 이상의 투표율을 넘지 못하면 개표할 수 없다. 이후 연장선거를 진행하는데, 연장선거에서도 40%를 못 넘겨 개표 불가능 상태가 되면 내년 3월 재선거를 진행한다. 만약 3월에 진행되는 선거에서도 개표가 안 되거나 낙선한다면 비상대책위원회(학생회가 궐위 상태에 빠진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되는 집단, 이하 '비대위')가 구성되어 학생회의 임무를 대신한다. 비대위는 대표성, 인력, 책임감이 부족하여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보다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학생자치기구장 선거에서는 연장 투표를 거쳐 간신히 40%를 넘겼지만, 지난 2021년, 2022년 선거의 투표율이 30% 언저리라는 것을 생각하면 안심할 수 없다.

위 그래프는 2023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종료된 4년제 대학 30개를 대상으로 집계한 선거 투표율이다. 우리 대학의 투표율이 40.19%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본교를 포함한 31개 전체 대학 중 28번째 수준의 투표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투표율은 한 표의 소중함을 소홀하게 여기고 총학생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번 학생회부터는 선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학생들에게 투표의 필요성을 각인시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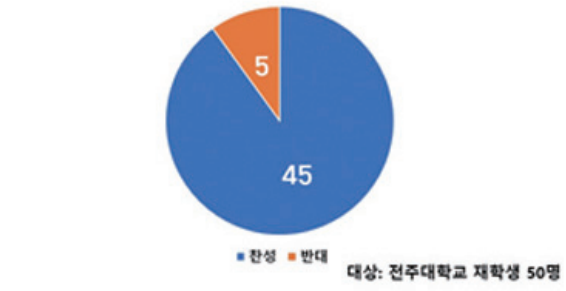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전동킥보드 경찰 단속에 관한 재학생 의견

교내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한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동킥보드 인도 주행과 2명 이상 탑승, 안전모 미착용이 인도로 통행하는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단속 권한이 없어 계도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안전 주행 캠페인 등을 통해 학생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단속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교내에서 불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 처분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주기적인 단속은 교육기관 장소에서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모습으로 보여 경찰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교내에서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캠퍼스 인도에서 '킥보드로 주행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5명이 '예'라고 답하였고 5명은 '아니요'라고 답하였다.



▲전동킥보드 교내 단속에 대한 설문 결과 (제작: 손민기 기자)

'2인으로 킥보드를 탑승하거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을 받은 학생들 대부분은 주기적으로 경찰이 교내에서 학생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에서 전동킥보드를 많이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관계자도 "경찰 단속보다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주행한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우리 대학 출신 김영권 선수 월드컵 16강행 기여

우리 대학 출신 김영권 선수(32·울산 현대)가 2022 국제축구연맹(이하 'FIFA')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귀중한 동점 득점을 올리며 대한민국 월드컵 16강행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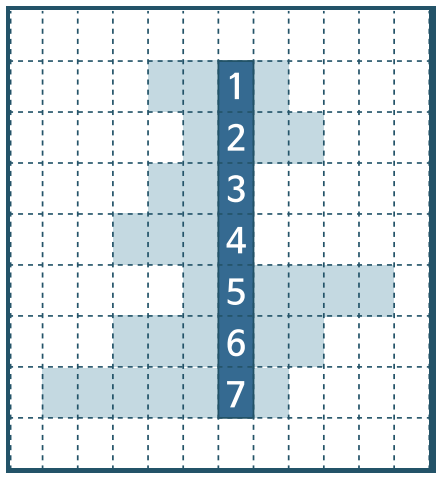
김영권 선수는 4년 전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 3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몸에 맞고 나온 공을 선제골로 넣으며 당시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독일을 2-0으로 꺾었었다. 그때와 유사하게 이번 월드컵 3차전에서도 상대 선수의 몸에 맞고 나온 공을 침착하게 골문 안으로 넣어 꺼져가던 16강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에도 김영권 선수는 대한민국의 후방을 단단히 지켰다. 하지만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매 경기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탓에 미세한 부상이 발생했고 결국 후반 81분 손준호(30·산둥 타이산) 선수와 교체됐다. 후반 91분 황희찬(26·울버햄튼 원더러스) 선수가 극적인 역전 득점을 넣으며 2-1로 역전승을 거뒀다. 같은 시간대에 진행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에선 우루과이가 가나를 2-0으로 잡아, 승점 4점으로 같은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은 다득점에 앞선 대한민국이 16강 진출을 이뤄냈다.

한편 우리나라는 16강전에서 FIFA 세계 랭킹 1위인 브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1-4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감했다. 하지만 패배했을지라도 무려 12년 만의 16강 진출을 했고 매 경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김영권 선수는 브라질전을 마친 후 FIFA+ 인터뷰에서 북미 3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이 공동 개최하는 2026 월드컵 출전 의지를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현재 만 32세인 그는 대표팀 은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몸 상태를 유지하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권 선수는 2010년 8월,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발탁되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대표팀 수비진의 리더가 됐고, 브라질과의 16강전으로 100번째 A매치를 마쳤다. 이로써 한국 선수 중 15번째로 FIFA '센추리클럽'에 가입했다.

송민호 기자(immino@jj.ac.kr)

신문을 읽으면 답이 보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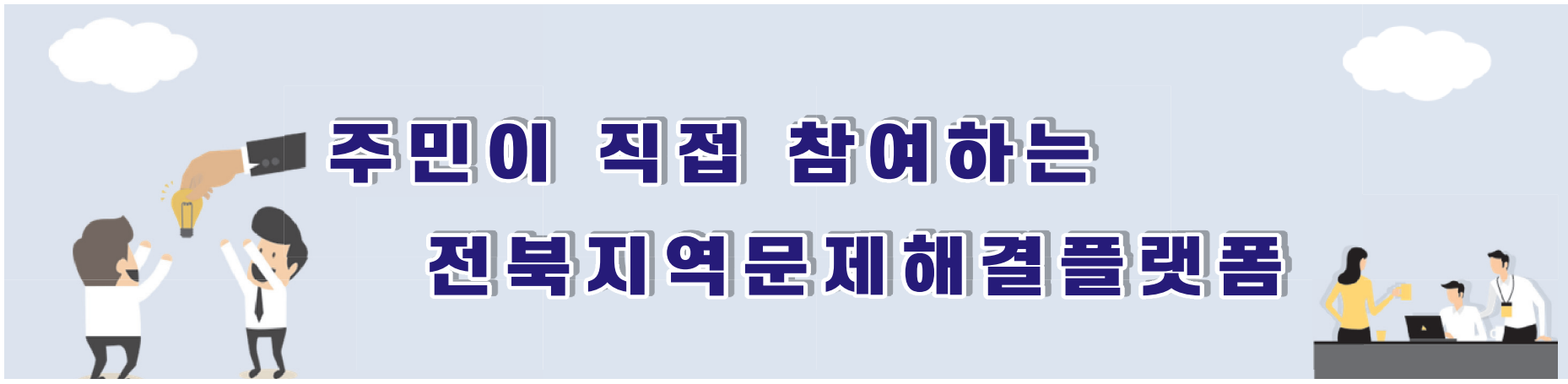


1. 이번 봉사활동에는 박진배 총장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 약 50명이 참여해 ○○○○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 세대에게 연탄 2,000장을 배달했다.
2. 이환 ○○○○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박진배 총장과 임정엽 총동문회장의 환영 인사가 진행됐다.
3. 봉사 기간은 2022년에 진행한 봉사활동에 한하며 사회봉사 교과목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상(총장상)은 85점 이상을 받은 학우가 없어 ○○○가 없었다.
4. 구체적으로는 '책으로 성장하는 방법', '나의 로드맵 그리기', '○○○○ 중심 스토리텔링', '미리 써보는 자기소개서' 등이다.
5. 이번 비스타 21기 수강생은 경영학과 2명, 물류무역학과 4명, 외식산업학과 2명, 패션산업학과 7명, 호텔경영학과 2명, 행정학과 1명, 영화방송학과 1명, 물리치료학과 1명, 산업디자인학과 1명, ○○○○○○1명 총 22명이 수강했다.
6. 우리 대학 출신 김영권 선수(32 · 울산 현대)가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포르투갈전에서 귀중한 동점 득점을 올리며 대한민국 월드컵 16강행을 이끌었다.
7. 시상 학생 부문에 대상(총장상) 1명(200만 원), 최우수상(○○○○○○○) 2명(100만 원), 우수상(사회봉사센터장상) 5명(50만 원)이 있다.

※ 925호 정답: 총학생회대축제

축하드립니다♥ [925호 정답자]
- 상담심리학과 신서연
- 상담심리학과 송주연
- 법학과 박서희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소지윤
- 소방안전공학과 소하진

* 알 림 *
※ 보다 많은 학우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2회연속 당첨은 제한하며, **동일 학과는 2명**으로 제한합니다.
※ 정답을 학과, 학번, 이름 그리고 연락처와 함께 **23년 1월 11(수)**까지 카톡 플러스친구 '**전주대신문사**'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5명을 뽑아 음료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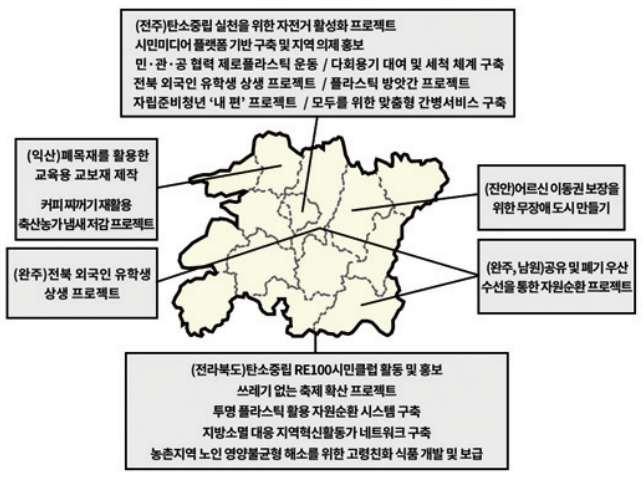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수도권에 인구와 문화, 산업이 집중되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하고 있다.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더불어 주거와 교통, 환경, 문화, 건강 등 사회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머리 아픈 문제들 사이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지역에 사는 우리가 불편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우리가 해결하면 좋겠는데?'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삼삼오오 보여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 탄생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플랫폼')은 민·관·공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 재정 등 자원을 모아 지역이 직면한 복잡한 난제를 시민주도로 해결해가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플랫폼이 운영 중이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플랫폼')은 우리 대학이 주관하고 있다. 전북플랫폼은 지난 8월 출범해 이번 달까지 활동을 진행했다. 1년간 활동한 다른 지역에 비해 짧은 사업 기간으로 아이디어 도출과 실현에 시간이 부족했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구축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도민들이 발굴한 15개 의제(환경, 노인 복지 등)를 가지고 도민들은 조를 이루어 맡은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은 리빙랩과 도시재생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했다.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평가를 위해 우리 대학에서 성과 공유회가 진행됐다. 성과 공유회에는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박진배 총장, 서완수 한국전기안전공사 ESG 경영처장, 양춘제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 등 내빈을 포함해 전북플랫폼에 참여한 91개 민·관·공 협업 기관과 의제 실행팀이 참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영상을 통해 "올해 처음 시작한 전북플랫폼은 지역 문제 발굴부터 실천까지 91개 기관의 아름다운 협업을 통해 명실상부한 지역 주도형 협력의 성공모델을 만들었다"라며 "내년에도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이어서 '불편한 어르신 이동권 보장'제안자이자 실행과정에 참여한 류영우 씨와 조세진 씨에게 도지사 표창이 전달됐다. 의제 실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6개 협업 기관에는 공동추진위원장의 감사패가 각각 수여됐다. 류영우 씨는"3개월여 촉박한 실행 기간이었지만 여러 기관이 기술, 인력, 예산 등을 보태며 한마음으로 노력했다"라며 "지속해서 불편한 농촌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지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부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 '내편' 프로젝트 의제 실행에 참여한 정우빈 군의 사회로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의제 제안에서부터 실행까지 참여했던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되면서 지역 혁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이번 전북플랫폼에서 추진한 15개 의제 중 우수성과 사례를 보면 '불편한 어르신 이동권 보장' 의제에서 지역의 청년들과 협업하여 어르신 300명 대상 설문 조사를 하여 5개 이동 경로와 불편한 사항 등 실태를 파악했으며, 어르신과 청년이 직접 현장 조사하여 무장애지도(안)을 만들어 냈다. 특히, '무장애도시 진안만들기'실현을 위해 민·관·공 9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해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았다. 앞으로 진안군과 진안군의회는 조례제정을 통해 전국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제로플라스틱 운동' 의제는 민·관·공이 기후 위기 대응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유컵(TURN블러)과 수거함 제작 등에 나선 활동이다. 텀블러와 공유컵 수거와 세척, 배달 등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 캠페인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도민 인식 개선과 개인 텀블러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 ·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 번째 '쓰레기 없는 축제 만들기' 의제는 쓰레기 없는 축제 만들기 협의체를 구성해 4개 지역축제를 모니터링을 한 후 환경친화적 행사 진행 메뉴얼 개발과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도내 축제나 행사에서 사용할 다회용기 대여와 세척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연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북에서 지행된 의제

Q. 전북플랫폼 성과공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실행 과제를 만들고 추진할 때 문제의 이해 당사자들이 활동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해나갔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참여한 모든 분이 대단하고 고마웠습니다. 특히 이 활동을 무보수로 일하기에 자발적으로 꾸준히 활동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북에서는 이렇게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람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덕분에 올해 활동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내년 활동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올해 진행한 의제는 이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활동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은 충분히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중 세 가지 방향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청년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나 로컬 브랜딩 등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탄소 배출 줄이기와 자원순환과 같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올해도 몇몇 부분에서 진행됐지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조와 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IT와 첨단기술 등을 결합해 기술기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던 도중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기술의 필요성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 만드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Q.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전북이 집중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A. 지역별로 비슷한 측면이 많지만, 전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면 집중해야 할 게 보입니다. 전북은 농도(農道)로서 농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과 같이 여러 공공기관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을 통해 얻는 음식 등의 부분을 어떻게 특성화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너무 어려운 문제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삶을 위한 문화적 토대 구축 같은 부분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가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문화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숭 교수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문화산업연구소장/지역혁신센터장/미래융합대학장)

Q. 직접 참여하신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 저는 〈진안협동조합연구소〉가 진행한 '어르신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장애 도시 만들기' 의제 발굴에 참여했었습니다. 올해는 디자인 싱킹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의한 다음 프로토타입 제작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내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Q.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직접 보셨을 텐데 어땠나요?

A. 농촌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혁신을 이루어내려면 청년들의 역량 증가가 필합니다. 리빙랩을 통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시각을 넓혀 가야 하는데,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청년이 많지 않습니다. 진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행히 청년협의체나 시니어클럽하고 협력도 하고 있지만, 일하다가 시간 내서 프로젝트 참가하는 게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도 시니어클럽 회원분들이 현장 방문 등 활동에 협조해주시고 교육에도 힘써주셔서 활동 진행은 잘 됐습니다.

Q. 성과 공유회에 참석하신 소감은 어떠셨나요?

A.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과정에서 과정보다 결과에 집중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리빙랩은 과정에 집중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 성공을 얻어내야 하는데, 결과에 집착해 과정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정에 집중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이 아닌 사업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돼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활동이 처음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활동을 위해 디자인 싱킹 과정을 4주 정도 운영했어요. 이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조언 요청도 이따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민 교수(창업경영금융학과장)

기사: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강수아 기자(xu0915@jj.ac.kr)

ABLE 총학생회
이환 총학생회장 퇴임인터뷰

▲ 이환 총학생회장

정책차장, 기획부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학사모니터링단 학생 대표, 총학생회장 후보. 입학 이후 지금까지 이환 총학생회장이 학교에서 맡아온 역할이다. 이환 총학생회장은 입후보 당시 공약설명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자신의 공약 신뢰도와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서류를 잔뜩 준비했다. 복지와 축제 이외에 학사 구조와 학교 앱, 시설과 기숙사 관련 문제 등 학우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통해 많은 지지를 받았다. 당선 후에는 소통하는 학생회를 중시하며 총학생회장실을 개방해 학우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총학생회장으로서 소속된 각종 위원회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올해 큰 관심을 받았던 대축제 또한 성공리에 진행했다. 학우들을 위한 행보에 많은 지지를 받아왔던 터인데, 이에 본지에서 퇴임을 앞둔 총학생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한 해 동안 총학생회장직을 맡아오셨는데,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소감이 어떠신가요?

열심히 활동해서 아쉬운 게 없을 거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대축제가 끝나고 나서 학우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칭찬과 격려 메시지가 저를 아쉽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1년만 더 하면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학우분들이 좋아해 주실 때 잘 마무리하고 내려오려 합니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국토대장정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독도 들어가는 날에 비가 왔었는데, 배에 탑승하기 위해 종이 예매권을 뽑아야 했어요. 혹시 몰라서 아침밥도 거르고 매표소에 들어갔는데 문을 여는 순간 결항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망연자실한 채 기다리던 도중에 재운항한다고 해서 입도에 성공했어요. 선장님이 "파도치고 비가 오는데 입도하는 경우는 여러분이 처음이다. 날씨 흐리다고 사진 안 찍지 말고 꼭 찍으세요"라는 말이 기억에 크게 남아있어요. 총학생회 표어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가장 성공한 사업과 많이 아쉬웠던 사업 한 가지씩 뽑아본다면?

성공적이었던 사업은 단연 대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5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에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해놨었어요. 서동현 아티스트는 공연 날이 데뷔 3주년 되는 날이었고요. 로이킴 씨도 4년 만에 하는 대학 축제였죠. 그런 의미가 좀 더 전달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진행 과정에서 아티스트 분들이 건강상 이유로 못 오시기도 했고 예산 확보에서도 힘든 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사업은 6월에 진행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었습니다. 상반기 학생회비 결산을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게 돈과 관련된 일이다 보니 제가 감사(監査)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엑셀로만 보여드리는 게 아닌, 실물 영수증을 가져와서 학우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시작하게 됐는데, 학우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학우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 예상했는데, 학생회 등 관계자분들이 대다수여서 원래 취지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금 횡령 같은 폐단을 끊으려면 무엇보다도 학우분들이 관심을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회비로 낸 1만 1천 원의 값어치가 감사 활동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올해 학우분들이 총학생회에 큰 지지를 보내줬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렴함'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운영은 깔끔하게 처리하고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위에서 무게감 없이 활동한 점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 슬리퍼를 신고, 해진 추리닝 입고 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학생들이나 회원들에게 지시하고 그런 행동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발 벗고 뛰어야만 학우분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올해 총학생회에 많은 지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 구조 개혁과 위원회 공약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구조를 개혁해야지만 총학생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가 잘 된 적이 있었나 되돌아보면 아직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 위원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먼저 예·결산추진위원회는 사업 집행 전과 후의 예산과 결산을 학우분들께 검토받았습니다. 예산 집행 전 사업 진행 여부를 설문했고, 진행이 끝난 후 결산 때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으로 사업 시작 전 기대감과 끝난 후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결산 설문을 진행할 때 실물 영수증을 붙여놔 예산 집행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책추진위원회도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해 정책 실행 여부를 학우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은행나무 관련 정책이 대표적인 예시였습니다. 원래는 은행 조기 수거 기계를 사려고 총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줘서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올해 낙과한 은행 수가 적어진 것을 꽤 느끼셨을 겁니다. 기숙사운영위원회는 학식 관련 문제와 통금 문제를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학식 만족도 조사와 통금 관련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통금 관련 서명운동에는 70명에서 8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서명해주셨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에 관한 일을 주로 다뤘습니다. 올해 인권센터의 규정이 바뀌어서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 위원이 최소 2명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인권센터규정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 중에서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31>

중앙감사위원회는 올해 과도기를 거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난 중간감사 때 경직된 감사 방식에 여러 대표자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피드백 삼아 중앙감사위원회를 바꾸는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자분들께서 감사로 인해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지만, 이런 시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위원회는 서포터즈인 '가디언즈'모집을 했었습니다. 서포터즈 분들이 기획 과정 같은 부분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사업 전반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가디언즈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나 결정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는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위원회 개혁도 시작된 것이기에 이후에는 더 발전된 위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약 이행 중 아쉬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전주대학교 모바일앱 개선과 학사구조개편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먼저 전주대학교 모바일앱 개선의 서비스 추가에 시간이 꽤 소요됐습니다. 원래 개강에 맞춰 1학기에 새로운 전주대학교 모바일앱을 공개해야 했지만, 버그가 많아서 출시를 미뤘습니다. 버그 수정으로 1학기에는 출시하지 못했죠. 그래서 2학기 개강 전에는 무조건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에 재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전주대학교 모바일앱을 써보고 내년 신입생들에게 알려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학기 개강 때도 출시하지 못하고 이번 학기 중간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학사구조개편은 학생회에서 요구한 부분 중 일부만 수용돼서 아쉽습니다. 처음에는 제시한 5개 개편안 모두 어렵다고 했습니다. 먼저 시스템적으로 구현 가능한지와 시뮬레이션 필요, 다른 학교 예시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문의했는데,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어렵다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의제로 논의했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특히, 사범대학 학우분들과 복수전공자, 교직 이수하는 학우분들의 불만이 엄청났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5학년은 기본으로 다니기 때문이죠. 학점이월제와 교양과목 최대 이수가능 학점 증가도 초과학기를 막기 위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도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학사구조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총학생회를 이끌 두 당선자에게 격려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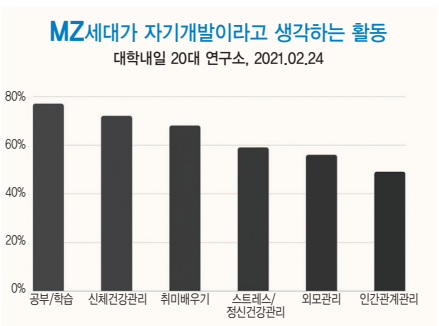
올해 학우분들께 받은 지지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 사라집니다. ABLE 총학생회를 기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SIGNAL 총학생회로서 SIGNAL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학우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과 신뢰가 생길 겁니다. 잘 해내서 문제없이 학생회 활동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글: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MZ세대의 건강 관리

최근 뉴스와 책, 영상 매체에서 'MZ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MZ세대란 M세대와 Z세대를 통틀어 지칭하는 신조어다. M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라는 뜻으로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시기에 태어난 사람이다. M세대의 특징은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겪은 것이다. Z세대는 다른 세대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지만, 마땅히 정의할 용어가 없어 미지수 χ를 붙여 만든 X세대에 이어 Z세대로 불리게 되었다. Z세대의 특징은 유년기부터 디지털 매체의 영향을 받고 개인의 자유와 현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MZ세대의 특징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고, IT 기기의 사용에 능숙하며 취미생활에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플랫폼이 더욱 확장되자 인터넷에 익숙한 MZ세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는 코로나19 여파로 건강 분야 시장의 주요 구매층으로 자리 잡았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자 무기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셀프 케어(Self Care)'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셀프 케어의 뜻은 자기 계발로 얻는 성취감으로 무기력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MZ세대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기개발이라고 생각하는 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부·학습(76%), 신체 건강 관리(72%), 취미 배우기(68%)로 신체 건강 관리가 취미 배우기보다 수치가 크다.



▲ 대학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MZ세대 자기개발 활동 (제작: 최건 기자)

신체 건강 관리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운동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과거 건강기능식품은 중·노년층의 전유물이었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젊은층이 새로운 소비자로 자리 잡았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들은 저렴하고 대용량인 상품들을 출시하고 인기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선정해 젊은 소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빠른 변화에 완벽하게 대응한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은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웰빙 트렌드(몸과 마음의 평안을 중시하는 삶)'의 인기는 변함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의 운동은 고강도 운동과 식단관리로 인해 '괴로워도 참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현재의 운동은 '즐거움'이란 인식이 생겨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운동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관심 증가, 접근성 완화, 운동 관련 상품의 다양화를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자기개발 활동 중에서 운동은 가성비가 좋다. 운동은 접근성이 좋고 개선되는 몸 상태를 보며 지속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실내 운동이 관심을 받는 추세이다. 실내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자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도 많이 개설되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며 운동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이라는 단어와 운동 후 사진을 게시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챌린지가 크게 유행해 실내 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더욱 많아지게 됐다.

대표적인 실내 운동에는 헬스, 크로스핏, 필라테스가 있다. 헬스는 가격이 무척 저렴하며, 기본적으로 혼자서 운동한다. 헬스는 크게 보디빌딩과 파워리프팅으로 나눌 수 있다. 보디빌딩이란 덤벨이나 바벨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해 차근차근 근육을 늘려가는 방식이다. 헬스장에 다니는 대부분이 보디빌딩 운동을 하며, 건강하고 균형 잡힌 큰 체격을 가질 수가 있다. 바디프로필이 유행하자 바디프로필을 촬영하기 위해 보디빌딩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다. 파워리프팅의 대표적인 운동은 흔히 3대 운동이라 불리는 벤치 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근육의 성장보다는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워리프팅은 무게를 새롭게 갱신할 때마다 성취감을 얻을 수 있으며, 큰 체격과 엄청난 완력을 얻을 수 있다. 크로스핏은 총 10가지 능력(심폐지구력, 최대근력, 유연성, 협응력, 민첩성, 균형감각, 정확성, 파워, 스태미너, 속도)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크로스핏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단체수업 방식이다. 함께 땀을 흘리는 소속감을 원하는 사람이면 상승효과를 가지겠지만, 자유롭게 혼자 운동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불편을 느낄 것이다. 크로스핏은 헬스보다 근비대(근육의 성장)는 떨어지지만, 종합적인 신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필라테스는 주로 여성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필라테스의 6가지 원칙(중심 안정성, 집중, 조절, 흐름, 호흡, 정확성)은 신체 구조를 교정해준다. 전신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과 신체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을 도와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운동은 심리적으로 갇혀있는 감정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불안정한 감정을 잠재운다. 또한, 운동으로 인한 규칙적인 활동과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면 산소공급이 증가해 신경안정제 효과를 일으켜 안락감을 느낄 수 있다.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많은 MZ세대 젊은이에게 운동이 유행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운동은 MZ세대에게 성취감을 부여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도피처로 자리 잡은 것이다. 2022년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3년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운동을 추천한다.

기사: 최건 기자(chlrjssm63@jj.ac.kr)
디자인: 김예은 기자(ekfzmsdl@jj.ac.kr)

MOVIE RECOMMENDATIONS

한 학교의 하굣길, 3명의 여학생을 향해 왼팔에 용 문신을 한 소녀가 뛰어옵니다. 그리곤 그 중 한 명의 머리채를 잡아 눕히곤 폭행합니다. 왼팔에 용 문신을 한 소녀는 방금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열아홉 살의 '혜영'은 거침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 불도저 같은 성격인가 봅니다.

법원이 명령한 직업 수강 명령을 듣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빠 '본진'이 남의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람 2명을 치고 난간 밑으로 떨어져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사고 소식에 숨도 고를 새 없이 피해자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일한 보금자리인 중국집은 2주 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기에 처합니다. 이제 스물을 코앞에 둔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일들이 한 번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빠는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이 상황에서 손 놓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없으니, '혜영'은 아빠의 사고 행적부터 되짚어봅니다. 사건 현장은 횡단보도도 없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혜영'은 피해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피해자는 회피하는 답만 내놓고, 급히 퇴원합니다. 답답한 '혜영'은 경찰을 찾아가지만, 경찰은 오히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본진'이 자살했다고 의심합니다. 열아홉의 '혜영'이 던져진 세상은 차갑기만 합니다.

사고 이후로 '혜영'의 핸드폰은 아빠를 찾는 전화로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걸 느낀 '혜영'은 아빠의 핸드폰을 열어 봅니다. 아빠의 핸드폰 백그라운드에는 녹음파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은 '혜영'은 목소리의 주인공인 아빠의 전 직장인 '한국 중장비'의 회장이자 국회의원 후보인 '최영환'을 찾아갑니다.

영화의 결말에 불도저 같은 성격의 '혜영'은 아빠가 몰던 불도저에 타고 어딘가를 향해 한 치의 망설임도 거침도 없이 어딘가를 향해 돌진합니다.

기사 및 디자인: 진주현 기자(jjh8222@jj.ac.kr)

오늘 이 영화 어때요?

- 제목: 불도저에 탄 소녀
- 감독: 박이웅
- 장르: 드라마
- 출연: 김혜윤, 박혁권, 오만석
- 러닝타임: 112분
- 개봉: 2022. 04. 07

"그러면 그냥 죽어요?"
"누가 우리 말 듣기나 하는 줄 알아?
그러고 사는 거야.
다 조금씩 참으면서 자기 분수에 맞게!"

도대체 그날 아빠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열아홉의 소녀를 '불도저'에 타게 했을까요?
불도저같이 거침없는
열아홉 '혜영'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오늘, 이 영화 어때요?

통화녹음금지법 개정안은 옳은 법률일까?

어느 날, 정부가 통화녹음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신은 찬성표를 던질 것인가? 반대표를 던질 것인가?

통화내용의 무분별한 악용을 막아야 한다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면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는 카메라를 통한 불법 촬영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며, 카메라 촬영 시 촬영음이 나오도록 의무화됐다. 불법 촬영 못지않게 큰 문제가 되는 불법 녹음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은 사생활의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이다. 여기서 음성권이란 얼굴에는 초상권이 있듯 자신의 목소리가 허락 없이 녹음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제삼자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이라도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사적인 대화나 통화내용이 몰래 녹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생활 보호를 중요시하는 독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와 미국 10여 개 주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을 금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IT' 기기들이 상당 부분 일상화됐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인 국가다. 또한, 데이터 수집이 광범위해지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나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확대될 것이다. 조지프 터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가 쓴 '보이스 캐처(The Voice Catchers)'라는 책을 보면 음성인식 기술은 목소리 톤으로 감정이나 성격을 추론하고, 나아가 그 사람이 앓는 질병부터 나이, 인종, 교육 및 소득까지 예측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비밀 녹음은 단지 대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넘어 생체정보 유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에서 초상권과 더불어 음성권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 등으로 타인을 협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동 또한 분명히 사회적으로 단죄해야 하는 범죄이다.

음성권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사회적 약자와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을 반영한 예외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음성권이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녹음으로 얻는 편익과 비교해보면 쉽사리 결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통화녹음금지법

통화녹음금지법은 현재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다. 나이별로 보았을 때 녹음파일을 업무나 증거 수집용으로 활용하는데 더 중요시하는 젊은 층일수록 반대 여론이 강했다. 18~29세가 80.7%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40.1%를 기록해 고령층으로 갈수록 반대 여론이 낮았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녹음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적 증거로 활용되는 대화 녹음의 순기능을 규제하게 되는 것이다. 오픈넷(인터넷 시민운동 단체)에서는 대화라는 것은 비밀의 행위가 아니며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대외적 활동으로 상대방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는 원칙적으로 비밀로 지켜져야 할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발설하지 말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각종 사회 고발과 언론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진실 증명을 어렵게 만들어 부조리한 행위와 거짓된 항변이 만연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개정안이 시정되면 공익을 해하게 되며, 사회의 고발과 감시 기능을 위축, 마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반대하기보다는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통화내용 녹음 기능 자체에 법적 통제를 가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지위와 상황에 따라 이 개정안의 필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대화나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강자는 굳이 증거 확보를 위해 비밀 녹음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강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각서, 경위서, 사진 등 다른 증거들을 쉽게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강자는 기존 증거 확보 수단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대화를 녹음하고자 하면 약자의 동의를 받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회적 강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사회적 약자는 강자보다 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증거개시제도 등 약자에게 공평한 소송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 우리 소송법은 비밀 녹음이 그나마 유력한 소송 무기가 되었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소수의 사람보다 통화녹음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의 상황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맞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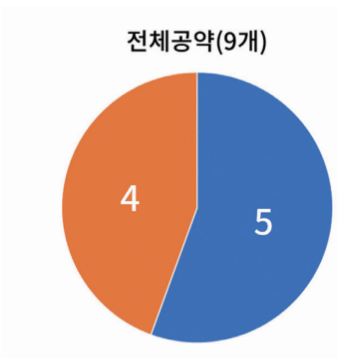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등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는 명예훼손죄와 같이 언론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때 위법성 조각 사유(형식상 범죄 또는 불법 행위의 조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범죄 또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 독일과 아일랜드도 녹취에 대한 사전 고지와 녹음 기록의 활용 목적을 분명히 밝힌다면 충분히 선의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유럽 국가들은 대화 녹음의 활용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언론 활동과 사회 고발의 경우, 즉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대화 녹음의 활용도와 중요성을 인정하여 직접적인 법적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사: 백서희 기자(seoheebaek03@jj.ac.kr)
디자인: 김은솔 기자(ssolk1129@jj.ac.kr)

2022학년도 학생자치

본지에서는 2022학년도 학생자치기구의 공약 이행도와 만족도를 조사했다. 지면 분량상 총학생회를 비롯해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의 주요 공약과 세부 공약을 합쳐 이행도를 산출했다. 이행 기준은 12월 23일이며, 학생자치기구에 직접 공약 이행 확인을 받았으며, 일부 공약은 관련 부서 문의를 통해 이행을 검증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인터넷신문(news.jj.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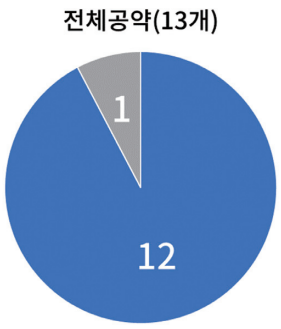
▣ ABLE 총학생회 공약 이행도



총학생회는 공약 9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4개) 중 5개를 이행 완료했고 4개를 부분 이행했다. 이행된 공약은 주요 공약 3개(●ABLE DAY ●복지시스템 통합운영 ●가다실9(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제휴)와 세부 공약 2개(●SuitABLE 시설개선 ●ValuABLE 학생복지)로 확인됐다. 부분 이행된 공약은 주요 공약 2개(▲학사구조개편 ▲전주대학교 모바일 앱 개선)와 세부 공약 2개(▲ReasonABLE 학사 ▲Comfort-ABLE 기숙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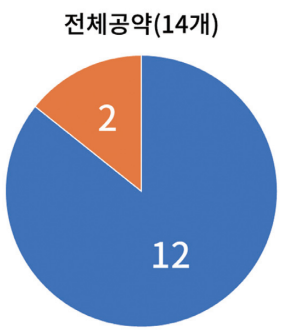
▲학사구조개편 공약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연장과 수강바구니 개편이 부분 적용됐다. 교양과목 최대 이수가능학점 증가와 복수전공 및 교직이수자 학기당 최대 이수 가능학점 증가, 학점이월제 도입은 관련 부서와 논의했지만, 도입 시 효과 미비 예상과 기술 한계로 이행되지 못했다. ▲전주대학교 모바일 앱 개선 공약도 뒤로가기 버튼 활성화와 메시지 미수신 기능, 학생회와 제휴업체 UI 추가는 추가됐으나 통학버스 실시간 위치 제공과 장학 컨설팅 UI 추가는 관련 부서의 정보 제공의 문제로 추가되지 못했다. ▲ReasonABLE 학사 공약은 교양과목 신설 공모전 개최가 이행됐다. 대학 평의원회 학생 위원 2명 위촉은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학과 살리기 공모전 개최와 총장직선제는 이행되지 않았다. ▲ComfortABLE 기숙사 공약은 기존에 운영되던 입사비 분할납부제와 샤워기 교체가 부분 이행되었고, 통금 폐지 검토는 기숙사운영위원회를 통해 논의됐으나 현행 유지로 결정되어 이행되지 못했다.

▣ ABLE 중앙동아리연합회 공약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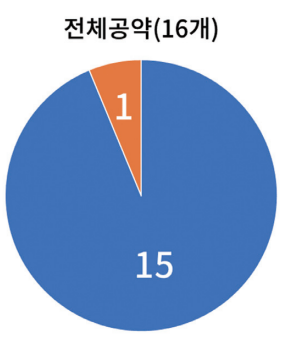
중앙동아리연합회는 공약 13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8개) 중 12개를 이행 완료했고, 1개는 부분 이행했다. 부분 이행된 공약(▲동아리 'MAP')은 내년 중으로 전주대학교 모바일 앱에 추가될 예정이다.

▣ ABLE 인문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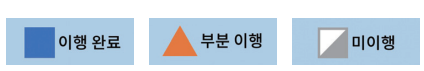
인문대학 학생회는 공약 14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9개) 중 12개를 이행 완료했고 2개를 부분 이행했다. 부분 이행된 공약(▲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 ▲진리관 뒤 족구·농구장 펜스 설치)은 2023년 예산에 반영되어 설치될 예정이다.

▣ ABLE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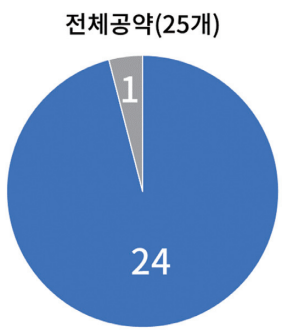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공약 16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11개) 중 15개를 이행 완료했고 1개를 부분 이행했다. 부분 이행된 공약(▲우산 물기 제거기 및 강의실 우산꽂이 설치)은 예산상 문제로 우산 물기 제거기가 미설치됐다. 강의실 우산꽂이는 설치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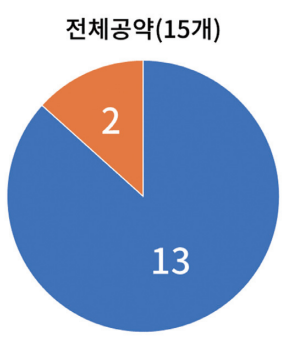


RE:ACTION 경영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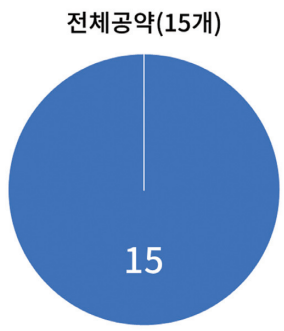
경영대학 학생회는 공약 25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20개) 중 24개를 이행 완료했고 1개를 미이행했다. 미이행한 공약(◪음식물 처리기 설치)은 원칙적으로 강의실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수 없다는 점과 소음 등의 문제로 미이행됐다.

▣ RE:ACTION 공과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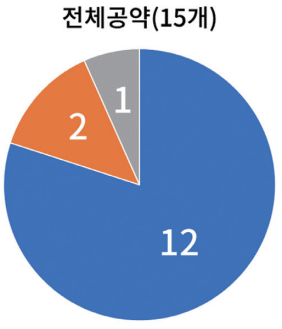
공과대학 학생회는 공약 15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10개) 중 12개를 이행 완료했고 2개를 부분 이행했다. 이행된 공약 중 '바자회 액션 〈RE:CYCLE〉'은 '학생회를 이겨라' 보드게임 행사로 대체했다. 부분 이행된 공약(▲〈RE:PORT〉 공대 알리미 액션)은 애초에 계획한 온·오프라인 게시판 활성화에서 오프라인 게시판만 활성화했다. 공대 map 개선 공약은 이행 중이다.

▣ RE:MAK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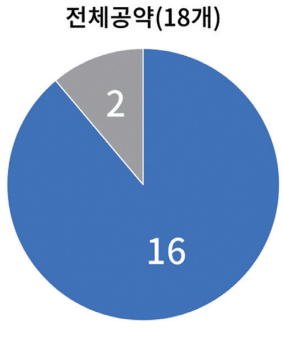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는 공약 15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10개) 모두 이행 완료했다.

▣ ABLE 문화관광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도



문화관광대학 학생회는 공약 15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10개) 중 12개를 이행 완료했고 2개를 부분 이행했다. 1개는 미이행했다. 부분 이행한 공약(▲농구장 리모델링 ▲HATCH 로그 공용 컴퓨터 설치) 중 농구장 리모델링은 총장실에 건의해 진행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용 컴퓨터 설치는 학기 종강 후 설치한다고 밝혔다. 미이행한 공약(◪피플카 제휴 및 배치)은 피플카와 우리 대학 간 계약이 만료되어 이행하지 못했다.

▣TIM'E 사범대학 학생회 공약 이행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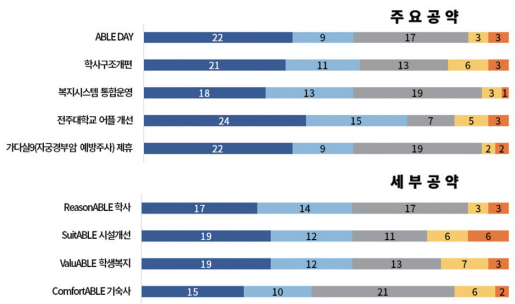


사범대학 학생회는 공약 18개(주요 공약 5개, 세부 공약 13개) 중 16개를 공약 이행했으며 2개는 미이행했다. 미이행한 공약(◪CUBE+ TIME! ◪EATING TIME!)은 무인 프린터기와 스낵 자판기 업체와의 계약 불발로 이행되지 못했다.

기사: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디자인: 김지혜 기자(rwg1130@jj.ac.kr)

기구 공약 이행 평가

ABLE 총학생회 공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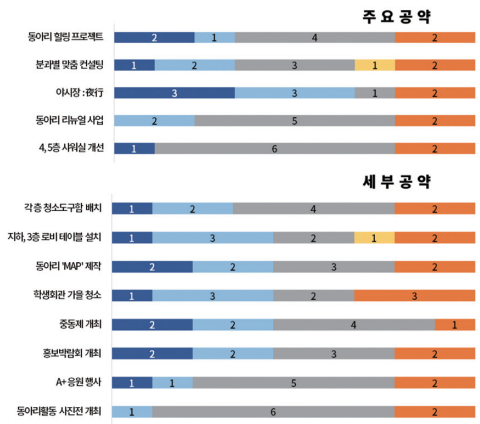


학우 의견

- ✓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 ✓ 학사제도 개편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구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제대로 상정하고 정한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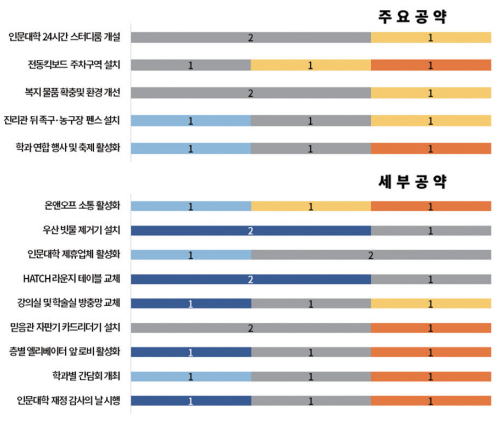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재학생(54명)

ABLE 중앙동아리연합회 공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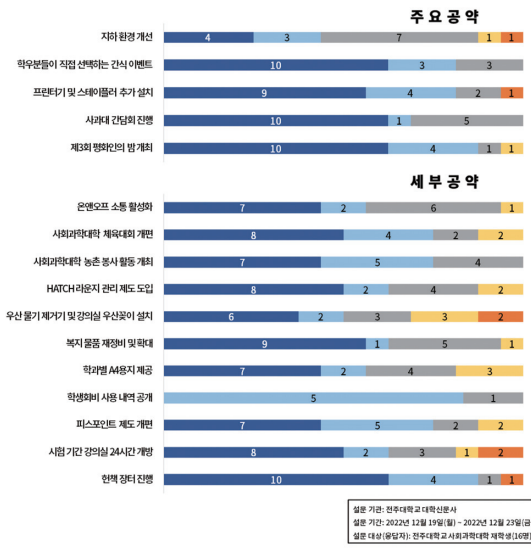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재학생 중 동아리 가입자(9명)

ABLE 인문대학 학생회 공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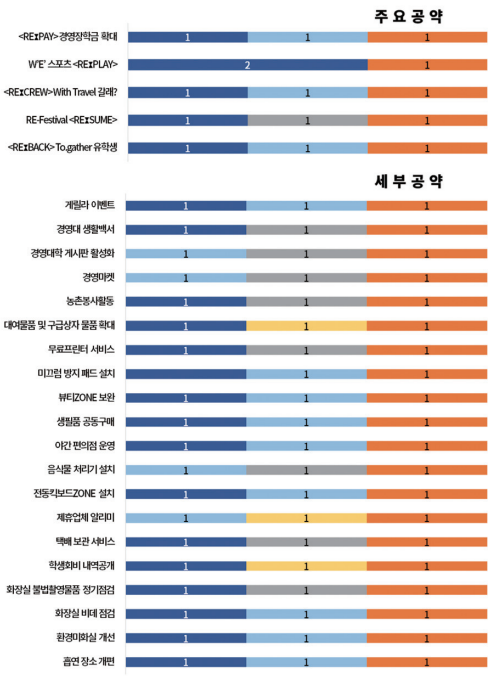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재학생(3명)

ABLE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공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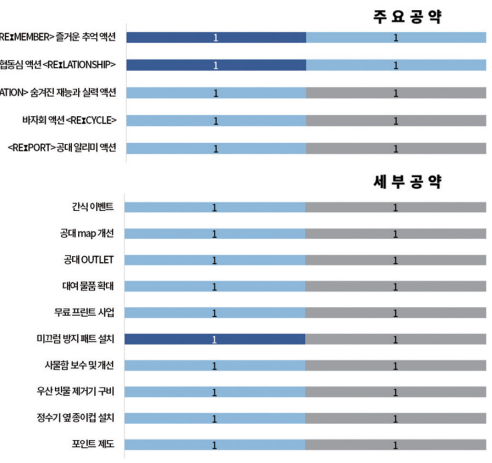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재학생(16명)

REɪACTION 경영대학 학생회 공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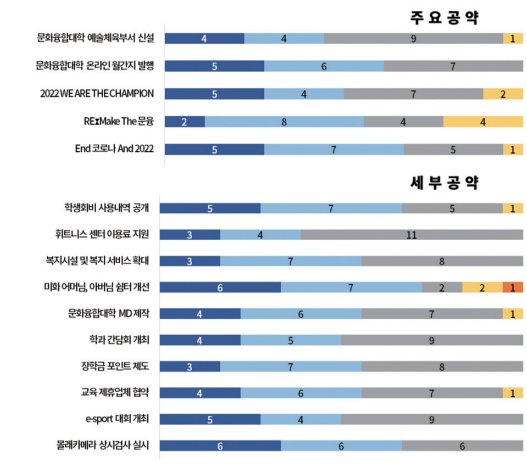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경영대학 재학생(3명)

REɪACTION 공과대학 학생회 공약 만족도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2명)

REɪMAKE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공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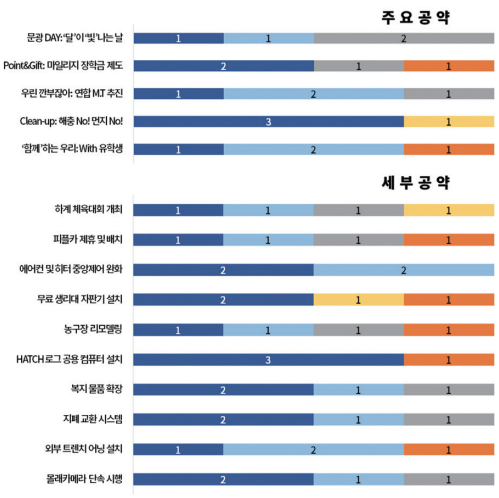


학우 의견

- ✓ 이런 공약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재학생(16명)

ABLE 문화관광대학 학생회 공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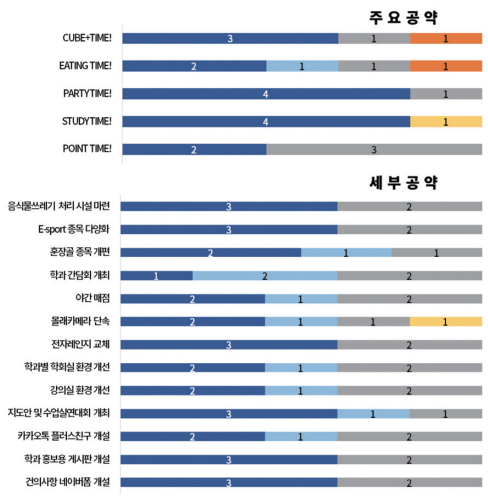


학우 의견

- ✓ 냉난방이랑 방역 관련 공약은 제대로 시행된 건지 모르겠어요.
- ✓ 생리대 자판기 남용 때문에 학생회실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학생회 인원들이 학과 학술제 관람으로 자리에 있지 않아 수령을 못했어요.
- ✓ 학생회실 사용시간에 지킴이분(당직)들이 없어 문 잠긴 적이 많아 아쉬웠어요.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문화관광대학 재학생(4명)

TIM'E 사범대학 학생회 공약 만족도



설문 기간: 전주대학교 대학신문사
설문 기간: 2022년 12월 19일(월) ~ 2022년 12월 23일(금) 5일간
설문 대상(응답자):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5명)

매우 만족함 ● ● ● ● ● 매우 불만족함

2022 캠퍼스 동역자 초청 감사의 날

지난 12월 13일 전주대학교 선교봉사처에서는 캠퍼스 동역자들을 초청하여 마음을 나누며 함께 교제하는 감사의 날을 진행하였다. 이날 진행된 감사의 날에는 소그룹 채플 리더들을 비롯하여 전주대 캠퍼스 복음 사역에 헌신한 53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도 자리하여 감사를 표하였다.

이진호 목사(전주대 성품채플)의 기도로 문을 연 감사의 날은 지난 4년간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집밥과 도시락을 제공하며 사랑을 전한 전주풍성한교회 김선정 사모의 간증으로 은혜가 더욱 깊어졌으며, 감사의 날을 맞이해 초청된 찬양사역자 박요한 목사의 찬양으로 추운 겨울, 마음만은 따뜻한 시간을 만들며 성황리에 마쳐졌다. 한편 전주대학교 성품채플은 2023년도 전면 대면 강의로 전환할 예정으로 더 많은 캠퍼스 동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마음을 다해 함께하고 싶다면 063-220-2423 (선교지원실 오황제)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선교지원실 최은혜(greacechoi@jj.ac.kr)

예배안내

교직원 및 학생을 위한 중보기도 요청

전주대학교는 중보기도의 창구가 열려있다. 동료, 혹은 학생 중에 건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선교지원실에서는 함께 기도로 돕고 있다.
또한 교직원·학생들을 위한 신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205호), 이진호 목사 (대학교회 206호)

겨자씨

대림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다. 기다림은 갈망이다. 해마다 이즈음 우리는 초대 교인들처럼 간절한 그리움으로 주님께 청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22:16). 주님은 이미 사람의 아들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삶의 푯대가 되시어 복음을 선포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막 1:15)하나님의 나라가 '엥기켄', '손안에 있다'.

▼ 제자들이 근심에 싸였다. 만왕의 왕께서 수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그렇다. 마음에 근심거리가 자리 잡으면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린다. 수심 가득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 예수는 제자들에게 근심의 뿌리가 '손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음에 있음을 밝히신다. 그리고 가르치신다.'네 믿음의 뿌리를 우주 만물의 아버지께 두어라,' 상거지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그래도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며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 따로 '사랑'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바로 너의 아버지를 믿어라.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너의 '믿음'을 이뤄주겠다며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믿어라. 길은 영원한 목적지요, 출발점이요, 과정이다. 당신이 목적이며 가는 수단이며 출발점이라는 말씀이시다. 모든 길은 길 아닌 것과의 결별이다. 길을 간다는 말은 곧 길이 아닌 데로 가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비록 하루하루를 쫓기듯 살아가지만 우리가 길 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일상을 살아내겠노라는 믿음의 고백이다.

▼ 길의 또 다른 이름은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에게로 연결되는 '길'과 아버지를 드러내는 '진리'와 아버지와 하나로 연합하는 '생명'을 얻는다. '오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는 예수께서 이런 '길'이심은 그가 곧 '진리'요, 그가 곧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하지 아니한가. 구원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내 손에 있지 아니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14:6). 아멘.

장선철 교수 (상담심리학과)

기도문

2023년의 소망을 아룁니다!

저마다 소망을 품고 시작했던 새해 첫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세밑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 유례없는 경기 불황, 전쟁과 심각한 기후 위기 속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는 '다사다난'의 해를 보냅니다. 소망했던 바를 다 이루지 못한 한 해였을지라도 여기까지 이끄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3년의 전주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독 사학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호남의 작은 도시에 위치한 지리적 한계, 여러 대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그럼에도 신앙적 순결함을 잃지 않는 학교로 이끄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많은 학교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래도록 남겨두시고, 자랑하고 싶은 학교로 세워 주옵소서!

2023년에는 총장님과 이사회, 교수회,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학교를 섬기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학교의 미래를 보는 혜안을 열어 주시고, 풀기 어려운 현안을 오직 성령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총장님에게는 탁월한 리더십을 더하시고, 이사진에게는 학교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교수님들에게는 학생들을 가르칠 풍성한 지혜와 지식과 덕을 더해 주시고, 교직원들에게는 학교 운영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자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상을 받게 하옵소서!

2023년 신입생 모집 과정에도 은혜를 베푸소서! 건실한 꿈을 가진 이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평생의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변화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재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각자의 전공을 통해서 인생의 소명을 깨닫고 세상을 비추는 이들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외국인 유학생들과도 함께 해주시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품고 세계 속에서 전주대학교의 위상을 빛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졸업생들과도 함께 하옵소서! 그들의 진로를 활짝 열어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간 익히고 배운 것을 잘 활용하여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배운 진리에 따라 양심과 책임이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학교의 명성을 드높이는 이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영진 교수
(선교봉사처/선교지원실)

진리의 샘

낮은 자의 성탄

한병수 목사
(선교신학대학원 신학과 조교수/
선교봉사처장/선교신학대학원장)

성탄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들 중의 하나는 마태가 동방 박사들의 입으로 인용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지도자들 중에 결코 가장 작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통치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미가가 기록한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랏은 유다의 천 [성읍들] 중에서 [비록] 작더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오리라 그의 근본은 아득한 옛날부터, 영원부터 있다"(미5:2).

요단 서편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되 유다 성읍들은 무려 120개가 넘습니다(수15:20-63). 그런데 미가가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천"(אֶלֶף)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말하고자 함인 듯합니다. 그 성읍들 중에 베들레헴 에브랏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읍은 유다의 모든 성읍들 중에서 가장 작은 곳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미가의 "작다"는 말을 "가장 작은"으로 이해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 에브랏은 아마도 부자나 유력한 자나 유명한 자나 유식한 자의 고장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마을일 것이지 싶습니다.

"가장 작다"는 당시의 객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히브리어 "베들레헴 에브랏"은 "떡집의 풍요로움 혹은 풍요로운 떡집"을 뜻합니다. 눈으로 보는 이 마을의 외모는 초라하나, 마음으로 보는 그 마을의 의미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미가는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가장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 에브랏은 갈릴리 나사렛과 유사하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입니다(요1:46). 그러나 미가의 예언은 사람들의 그런 상식을 뒤집어 엎습니다. 베들레헴 안에 역설적인 의미의 공존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랏은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어서 장사된 곳입니다(창35:19). 또한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출생한 곳입니다(삼상17:58).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인 것처럼 이후에도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언된 자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할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예수는 동일하게 지극히 작은 베들레헴 고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는데 전자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후자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들은 헤롯은 그를 "그리스도"(Χριστός)라고 부릅니다. 헤롯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첫 사람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광기와 살기를 뿜어내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과 그 일당에게 성탄절은 분노의 날입니다.

성탄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고을 베들레헴 에브랏이 답입니다. 성탄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왔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오신 성탄의 공식적인 이유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 가난한 자, 포로 된 자, 눈 먼 자, 눌린 자, 즉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성탄이 임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한, 교만하고 부하고 방자한 사람들은 성탄과 무관하고 오히려 성탄의 숨통을 조입니다. 성탄절에 유력하고 부유하고 유명한 자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롭고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현장으로 보는 세계기독교 역사이야기52

에게해의 아름다운 섬 미코노스 Mikonos

교회사 김천식 박사
(joayo7kim@hanmail.net)

그리스 아테네로 가던 도중에 그야말로 모험심만으로 작정 없이 미코노스 섬에 내렸다. 다행스럽게도 우연히 만난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있다며 자기 집에서 하룻밤 묵으라고 하기에 따라가는데,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골목길로 해서 가른 언덕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같이 간 나승균 장로가 있었길래 망정이지 아마도 나 혼자였다면 따라가는 것을 주저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안내한 게스트하우스는 건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작지만 깨끗하였다. 모기 잡느라고 좀 실랑이는 했지만, 잘 잤고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와 보니 상쾌함은 물론, 미코노스 앞바다와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어제 밤의 우려가 말끔히 가셨다. 항구 시내는 바다로 둘러싸였고 하얀 건물들과 언덕 위의 풍차는 잘 어우러진 풍경이다.

미코노스는 일반적으로 에게해의 풍광 좋은 섬으로 소문나 있다. 특히 파라다이스, 파라가 등 아름다운 해변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시내의 작은 골목들도 모든 건물이 흰색에다 문들은 전부 푸른 바다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아주 깔끔하다. 에게해의 특징을 보여주는 깨끗하고 아기자기한 풍경이 생경하다. 선물가게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 특유의 공예품들이 눈길을 끈다. 이를테면 성탄초도 푸른 바다와 하얀 파도를 모티브로하여 만들어졌는데, 에게해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금년 성탄 장식으로 촛불을 밝혔다.(아래 사진 참조) 자연을 모티브로 하는 그들의 아이디어가 상큼하다.

그리고 보다 흥미로운 것은 특이한 교회 모양이다. 위의 사진의 파라포르티아니 교회처럼 흔치않은 건축물인데, 이 교회를 비롯해서 시내곳곳에 빨간 돔과 파란 돔으로 된 교회들이 눈에 띈다. 이 모두 사도 바울의 영향이다. 바울은 네 번의 선교여행 중 두 번째 여행 때 안디옥을 출발하여 트로이까지 육로 갔고 빌립보, 데살로니가를 거쳐 아테네까지는 육로와 해로를 다 이용하였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부터는 배를 이용하여 터키 에베소까지 가게 되는데, 이때 다도해인 키클라데스 제도 지역을 지나가게 된다. 바울은 당연히 섬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선교의 역사가 건축물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오는 것이다.

자유여행 또는 테마 여행이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만나게 되지만, 이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은 경험을 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여행은 모험'이라 하지 않았던가! 바울에 대한 문헌을 찾다가 관련된 자료가 있길래 그 일부를 소개한다.

▲ 미코노스 섬의 특이한 건축물은 파라포르티아니 교회인데, 바울의 영향이다.

The blue Aegean, coursed by Paul on his Second Great Journey, frames a church on Mikonos. The Greek island, only nine miles long, has nearly 400 churches built by fishermen to fulfill vows made while in peril at sea.(The World of Paul, 『Bible Times』, p.424)

▲ 미코노스 전경

▲ 미코노스의 성탄초는 바다를 연상케 한다. 꽃을 지고 가는 작은 당나귀도 앙증맞다.

기자칼럼

힘을 잃어가는 '대학언론'

박헌빈 편집장
(hans8150@jj.ac.kr)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접하며, 때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존재는 정치와 검찰 등의 권력 견제나 범죄 예방이 된다고 하여 국내에 포진된 또 다른 CCTV라고 불린다. 이처럼 대학언론도 대학교에 보이지 않는 CCTV라고 불린다. 그러나 현재 대학언론은 형식상 존재하며 실질적인 힘은 잃어가고 있다.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다. 지난달에 열린 대축제 기간에 지나가는 학생을 붙잡고 물어봤다. 10명 중 7명은 교내 신문방송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거나, 우리 학교에도 신문방송국이 있는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이는 대학 언론의 위기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단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한 인력이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문화로 취재와 인터뷰가 통제되면서 사실상 언론 활동이 컴퓨터로 하는 서면 활동으로 변질했다. 이에 흥미를 느끼기 힘들게 되자 언론사를 떠나는 기자 수가 늘고 있다. 또한 언론사에 지원하는 학생 수가 바닥을 보이자 신입 기자를 뽑을 때 자원자 간의 경쟁이 없어서 면접은 형식상 존재하는 면담에 불과하다. 학보사 경력이 있다고, 대학 졸업 후에 유명 언론사 취업 등에서 딱히 유리한 점도 없다. 기업은 학보 기자 경력보다는 명문대 학벌이나 외국어 점수, 학점, 전공 지식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언론사는 신입생에게 큰 가치를 주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재학생이 가진 4년이란 시간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언론에 애정이 깊은 학생이라도 영원히 남아있을 수도 없다.

두 번째 문제는 언론 매체의 한계다. 이미 에브리타임으로 대학 소식 대부분을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또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끊임없이 새 소식이 전달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언론 매체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대학언론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대학언론사가 최대한 빠르게 신문이나 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해도 발전된 뉴미디어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교 건물 입·출구에 위치한 배포함에는 대학신문이 쌓여가고 있다. 신문들은 돗자리, 비 가리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대학언론에서 제작한 영상들은 매체를 통해 어떤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언론의 역할보다는 학생들이 제작했다는 행위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인쇄·영상 매체 특성상 대학언론인의 어떠한 각성이 있어도 매체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외부 문제만으로 초래한 것은 아니다. 우리 대학언론인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예전에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취재했다면, 지금은 뉴미디어를 이용한 비대면 취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잘 쓴 기사라도 뉴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용과 표절이 포함되면 언론에 보도할 가치가 있겠는가. 또한, 기사가 진정 본인의 것이라 할 수 있겠는가. 또 언급하고 싶은 문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과 주제만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볼링을 좋아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볼링을 주제로 취재하고 언론 자료를 만들 수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볼링은 대학생의 공통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 공통 관심사는 등록금 인상, 총장 선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평화관 폭발물 사건과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등이 있다. 대학언론인은 본인의 흥미보다 구독자의 흥미를 먼저 생각하며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언론인이라면 취잿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언론의 눈으로 교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언론 없이는 많은 사람의 의제 제시와 공유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학언론은 학교의 얼굴과 같다. 정보 전달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에 숨겨진 문제점을 직접 찾아 밝혀내는 등 학생들의 교양 증진과 정서 함양을 위해 힘쓰고,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대학언론은 교내 구성원 모두가 만드는 것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언론인의 열정과 대학언론을 향한 교내 구성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자칼럼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송민호 기자
(immino@jj.ac.kr)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장은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행한 문장이다. 문장의 탄생을 살펴보면 E-sports 프로게이머인 'Deft(김혁규)' 선수가 월드 챔피언십 최하위 시드부터 우승까지 차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Deft는 10년간의 프로 생활에서 오랫동안 최정상급 기량을 유지하며 경력을 쌓았으나 유일하게 월드 챔피언십 트로피만은 없었다. 선수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 모든 팬을 감동하게 하는 드라마를 쓰며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후 인터뷰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남겼고, 그 파급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 문장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들이 인용하여 사용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2022 신한은행 SOL KBO 한국시리즈'에서 또다시 언급되며 유명해졌다. 문장 자체가 범용성이 좋아서 스포츠는 물론이고 삶의 어느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했다. 그리고 한창 유행이 탈 즈음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가 개최됐다.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는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다. 한 시대를 주름잡은 많은 스타플레이어의 마지막 월드컵 무대이고 32개국 체제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월드컵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쏟아졌다. 월드컵 개막 3주 전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다. 그는 곧바로 수술받고 출전 의지를 드러냈고 안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를 뛰었다. 대한민국은 1차전 강팀인 우루과이 상대로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가나와의 경기에서 2-3으로 패배했다. 1무 1패, 심지어 벤투 감독은 퇴장을 받아 경기에 개입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맞이한 상대는 우승 후보 포르투갈이었다. 미국 닐슨 산하 데이터 기업 '그레이스노트(Gracenote)'는 대한민국의 16강 진출확률을 11%로 측정했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듯 전반전 5분 만에 실점했다. 거듭되는 공세를 막아내며 집중력을 잃지 않은 김영권 선수의 동점 득점이 나왔다. 서로 주고받는 양상으로 후반전 추가시간 역전 득점이 나왔다. 득점의 시발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손흥민 선수의 발에서 나왔다. 16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대표팀 선수들은 2002 한일 월드컵을 오마주하며 슬라이딩 세레머니를 선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세레머니로 태극기가 등장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적혀 있었다.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가 있었다면 2022년에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

위기를 딛고 역전하는 상황은 모든 사람의 가슴을 뛰게 한다. 확률 11%의 최악의 상황에서 대표팀 선수들만은 주눅 들지 않았다. 모든 선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현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희망을 보고 싶었고 믿고 싶었다.

우리의 최근 사회적 분위기는 희망보단 절망에 가까웠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걸 포기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한다. 대부분의 20~30대들이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 코로나19 이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기와 사회적 불안으로 취업이나 결혼을 도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삶은 역사를 만들 수 없다. 우리가 기억하는 수많은 성공담은 대부분 11%보다 더 낮은 확률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다. 그것에 기반이 되는 긍정적인 마음은 생각보다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도전하고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교수칼럼

방학이라는 선물

노언경 교수
(교육학과)

겨울방학이 시작되었다. 방학(放學)은 '학교에서 학기를 마치고 수업을 쉬도록 허용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는 2학기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라는 이름으로 장기간의 쉼이 공식적으로 두 번 주어진다. 대학도 일반적으로 2학기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으며 방학이라는 용어를 학칙에 사용하지는 않으나 종강 후 개강 전까지의 기간을 방학으로 활용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더위와 추위를 피하여 쉬고자 하는 목적으로 방학이 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냉·난방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더위와 추위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방학이 있다. 방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학기 중에 학생들을 살펴보면, 어떤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와 열의를 갖고 즐겁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거나 학업 무기력에 빠져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한다. 방학이 되면 학생들은 휴식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 또는 학업 무기력을 극복하고,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기도 하며, 학습과 휴식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다. 또한 학기 중에 하지 못한 다양한 체험 및 활동을 방학 중에 할 수도 있다. 학생뿐 아니라 학교나 교수자에게도 방학은 중요한 시간이다. 학교는 방학에 이전 학사 운영을 평가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고,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전 학기 수업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학기를 준비한다. 즉, 방학은 학교와 교육 주체들이 마냥 쉬는 기간이 아니라 교육의 긴 여정 가운데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간이며, 방학을 잘 보내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때 도움이 된다.

특히 대학생은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방학이 긴 편이며,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시기이므로 방학을 활용하는 데 비교적 독립적이고 자율적일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의 시기에 방학이라는 장기간 쉼의 기간은 '학생'이기에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과도 같다. 학교를 떠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을 길게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대학교 학생들이 두 달이 넘는 소중한 기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보내면 좋겠다.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모두 저마다의 계획대로 의미 있게 방학을 잘 보낸 후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란다.

교수칼럼

장애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 재활 프로그램

이규진 교수
(경기지도학과)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2.3만 명으로(2020년 5월 기준) 예년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 인구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1년 38.8%, 2014년 43.3%, 2017년 46.6%, 2020년 49.9%로 역시 증가세다. 이렇듯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장애'와 '노인'이라는 이중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취약 계층인 장애 노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장애노인 삶의 질은 정신 건강, 사회적 지지, 자아 존중감, 우울감 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상태가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신체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노인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는 불안증,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 건강 변인과 사회적 건강 변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애 노인의 전반적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위와 같이 장애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체 건강 변인의 향상을 위한 운동 재활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 장애노인의 경우 사회적 제약 및 운신의 어려움 등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COVID-19 이후 공공기관에서 실시되던 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 폐지됨으로써 장애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은 더욱 좁아진 형편이다.

결국, 장애노인은 제한적인 이동 능력, 운동 시설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노인에 비하여 신체활동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러한 장애노인의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운동 중재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home-based activity 프로그램이 원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COVID-19 이후 비대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운동 프로그램이나 AR, VR 기반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개발, 보급되어야지만 장애노인의 실질적 삶이 향상될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는 물론 제도적 관심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하루빨리 '장애노인'의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한 정책 수립과 예방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사 설

내가 내는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교수신문〉에서는 매년 연말에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해의 사회상을 진단하고, 이를 가장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표현을 사자성어로 선정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함께 고민해야 할 반성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노력이다. 2022년 올해에는 '과이불개(過而不改)'라는 사자성어가 뽑혔다.

'과이불개'라는 말은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음'을 의미하며, 본래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편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논어』에는 이와 짝을 이룰만한 표현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학이(學而)」 편에 나오는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라는 말이다. 이 말은 '잘못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이다.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과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 이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 일이며 훗날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어느 사회나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안전(安全)의 부재(不在), 신뢰의 부재, 원칙의 부재, 협치(協治)의 부재, 배려의 부재 등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결국 '잘못[過]'이라는 결과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참혹한지 우리 모두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단위의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읍·면·동, 시·군·구와 같은 국가 행정 단위라든가, 학과·단과대학·대학과 같은 교육 단위 역시 그 시스템과 운영 계획이 완벽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여러 잘못이 발생한다. 또 때로는 일부 구성원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 모두 올해도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이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이다. 작게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상실험실(리빙랩, Living Lab) 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크게는 우리 대학의 문제점, 우리나라 대학 사회의 문제점, 시정(市政)·도정(道政)의 문제점, 국정(國政)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다. 예전에 비해 각종 단위의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 역시 다양해지고 편리해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 참여는 결국 각자의 의지 문제로 귀결된다.

때로는 귀찮다는 이유로, 때로는 나와 별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동적인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문제를 해결한다. 각자의 목소리가 모여 커질 때 울림이 생기고 세상이 바뀐다.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신문방송국 063) 220-2441 / news@jj.ac.kr
발행인 박진배 주간 백진우 편집장 박헌빈
편집.인쇄 (주)제일출판
인터넷신문 news.jj.ac.kr

No. 926
December 28, 2022

The JJ Globe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Korea Tel: +82-63-220-2441 Publisher Jin-Bae Park, Managing Editor Hwang Yohan

Briquette Sharing Volunteer Activity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On December 9, JJU volunteered to make briquettes in Seoseo Hak-dong. This was set up by the General Affairs Office.

About 50 people from the university, including President Park Jin-bae, helped out by delivering 2,000 briquettes (each worth 800 won) to poor households in Seoseo Hak-dong.

JJU conducted a total of five briquette sharing volunteer activities, in 2014, 2016, 2017, 2018, and this year. For the past three years, due to COVID-19, group briquette volunteer activities could not be promoted. But this briquette volunteer activity was the first time since social distance was lifted, so it was a meaningful thing we did with our love and sweat.

The entire area of Seoseohak-dong consists of steep alleys and mountain roads. Seohak-dong residents are mostly single-person households or elderly households, making it difficult for them to carry briquettes on their own. Accordingly, briquette volunteer activities conducted by Jeonju are mainly conducted in areas such as Seohak-dong, Jeonmi-dong, and Dongsan-dong.

The people living in Seohak-dong looked at the volunteers carrying briquettes and did not lose their warm smiles despite the severe cold.

President Park Jin-bae said, "The briquette sharing volunteer activity was not difficult at all, and it was fun thanks to all volunteers working together with one heart. I am very grateful to the members of our university who participated in this volunteer activity."

Hanbok Outing at the JJU University Museum

reporter Park Heon-bin(hans8150@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The JJU University Museum (Director Kim Geon-woo) held a "Museum Outing in Hanbok" program every Wednesday from November 14th to December 17th. It was held every Wednesday using the "Culture Day" se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is event was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special exhibition "Hearts in the Lives of Our Ancestors," jointly organized by the Jeollabuk-do Museum Art Association and our university museum and sponsored by Jeollabuk-do. The museum's special exhibition started on November 1st and will run until January 31st, next year.

The museum that hosted the event said, "As the special exhibition was held, members of the university, including our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showed a good response as the event was known, and we planned a hanbok outing event to further enhance the atmosphere of viewing the special exhibition."

Visitors to the museum had the opportunity to wear hanbok and walk around the special exhibition room or campus. A program for making hanbok accessories, such as sachet key rings, was also held.When the people who went to the event posted pictures of themselves on social media, they got a small gift.

Park Hyeon-soo, manager of the museum, said, "We prepared a special exhibition where you can get a glimpse of the life and wisdom of our ancestors, and a hanbok outing event to publicize the culture and importance of hanbok. Furthermore, we intend to continue providing cultural services to university members and local residents through exhibitions, lectures, and other experiential events.

Call the Curatorial Research Office (063-220-2158) if you have questions about special museum exhibits and hanbok tours.

Kim Young-kwon, from JJU, Advances to the Round of 16 at the World Cup

reporter Song Min-ho(immino@jj.ac.kr)
translated by reporter Kim Hyun-ha(dpdlcl@jj.ac.kr)

Kim Young-kwon (32, Ulsan Hyundai) from JJU scored a valuable equalizer against Portugal at the 2022 FIFA World Cup in Qatar, leading Korea to the round of 16 at the World Cup.

Kim Young-kwon scored the opening goal in the match against Germany at the 2018 FIFA World Cup in Russia four years ago, beating defending champion Germany 2-0. Similar to that time, he scored in similar circumstances in this World Cup and advanced to the round of 16. Even after that, he firmly guarded the rear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as he poured all his energy into each game from the first game to the third game, a minor injury occurred, and he was eventually replaced by Son Jun-ho (30, Shandong Taishan) when 9 minutes of the second half remained.

In extra time in the second half, Hwang Hee-chan (26, Wolverhampton Wanderers) scored a dramatic come-from-behind goal and won 2-1. In the match between Uruguay and Ghana, played at the same time, Uruguay beat Ghana 2-0, and with 4 points, South Korea advanced to the round of 16, ahead of Uruguay and South Korea with multiple goals.

In the round of 16, they failed to cross the wall of Brazil, the number one team in the FIFA world ranking, and ended the tournament with a 1-4 defeat. However, even though Korea lost, it advanced to the round of 16 for the first time in 12 years and showed stable performance in every game.

In an interview with FIFA+ after the match against Brazil, Kim Young-kwon cautiously expressed hi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2026 World Cup, co-hosted by the three North American countries (USA, Canada, and Mexico). The 32-year-old said he hadn't thought about leaving the national team and would get ready by staying in the same shape.

He was selected for the first adult national team in August 2010 and made his A-match debut. And he became the leader of the defense, and finished his 100th A match with Brazil in the round of 16. He became the 15th Korean player to join FIFA's "Century Club."

The JJ Globe

No. 926
December 28, 2022

Published by Jeonju University, 303 Cheonjam-ro, Wansan-gu, Jeonju, Korea / Tel: +82-63-220-2441 Publisher Jin-Bae Park, Managing Editor Kim Guangshou, Park Sangkyu

蜂窝煤传递温暖的爱心

据全州大学对外协力弘报室13日消息，9日全州大学在全州市完山区西栖鹤洞为弱势阶层进行了“爱心蜂窝煤分享服务”活动。

此次活动由朴珍培校长亲自挂帅，带领50多位员工参加。全州大学的员工服侍团队在酷寒季节为困难的低收入弱势阶层捐赠2000块蜂窝煤，并亲自送上门。

全州大学继2014年、2016年、2017年、2018年之后，加上今年共进行了5次蜂窝煤分享服侍活动。最近3年因新冠疫情不得已停止了服侍活动。但今年政府解除了保持社交距离措施之后，马上恢复了服侍活动。

进行服侍活动的西栖鹤洞处于比较陡的山坡，而且这里的居民大多是一人家庭或老年家庭。因此居民自己搬运蜂窝煤比较困难。西栖鹤洞的居民眼看着不顾寒冷为他们搬运蜂窝煤的全州大学员工服侍团队的成员，连连微笑着表示感谢。

参加蜂窝煤分享服侍活动的朴珍培校长说：“因持续不断新冠疫情和蜂窝煤等日用品价格上涨等原因，人们处于比较困难的时期。但是希望通过我们的服侍活动给这里的居民带去希望，并度过温暖的冬天。我们全州大学将继续为与社区居民共进而努力。”

全州大学除了此次蜂窝煤分享服侍之外，2日在完山区一带也进行了有60多名学生与教职员工参加，为10个家庭分发3000块蜂窝煤的爱心分享活动。还为社区弱势阶层分发1000个亲手织的围脖、为公交司机分发零食等，全州大学进行着很多服侍社区活动。

全州大学为外国留学生赠送圣诞礼物

21日，圣诞节即将来临之际，全州大学（校长：朴珍培）为寒假没回国的留学生举行了圣诞礼物赠送活动。此次活动由太晨（音译）集团（代表：吴永锡,音译）为了让远离家乡在他国留学的全州大学留学生度过一个温暖的圣诞节特意资助300箱辛拉面，委托全州大学转给留学生。

越南留学生曾提涛（音译，经营学系四年级）说：“为了实现梦想来韩国留学，但是每当冬天就非常想念温暖的故乡。就在我们感到孤单的时候学校和社区社会总是这样以爱心来温暖我们，真是很感激。”

吴永锡代表说：“希望离开家乡来韩国留学的留学生度过一个温暖的圣诞节，非常荣幸能参与这样的资助。以后也会积极参与资助留学生活动。”

全州大学校长朴珍培也发表感想说：“我想太晨集团的捐赠会使留学生本来孤单的圣诞节变得温暖，也会激励留学生，给予他们很大的帮助。希望太晨集团事业更加发达，为社会做出更多贡献。”

另外，全州大学国际交流院为帮助外国留学生成功完成留学生活而竭尽全力。

Vì sức khỏe của du học sinh trường Jeonju, tiêm phòng cảm cúm miễn phí

Thời tiết sang đông nhiệt độ xuống thấp vậy nên rất dễ bị ốm, để đảm bảo sức khỏe cũng như đời sống của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đã hợp tác với bệnh viện địa phương 혁신마취통증의학과의원 chi viện tiêm phòng cảm cúm(독감) cho du học sinh. Vào ngày 9/12/2022 viện trưởng viện giao lưu Quốc tế cùng các giáo viên văn phòng đã đưa các 20 bạn học sinh đi tiêm phòng cảm cúm miễn phí. Ở Hàn Quốc cảm cúm là một trong những loại cảm phổ biến vậy cảm cúm là gì có nguy hiểm không? Là do vi rút influenza gây ra, có các triệu chứng toàn thân như sốt, đau cơ và đau đầu rõ ràng hơn nhiều so với các triệu chứng cụ thể như sổ mũi, ho, đau họng. Bệnh này có thể biến chứng sang viêm phổi, với trẻ nhỏ và người mắc bệnh tim phổi mãn tính, người suy giảm miễn dịch có thể bị biến chứng và tử vong. Thời gian dễ mắc bệnh là từ tháng 10 đến tháng 5, vậy nên vào mùa đông người hàn cũng rất hay tiêm phòng cảm cúm. Mong các bạn học sinh luôn bảo vệ và giữ gìn sức khỏe để có một đời sống du học an toàn mạnh khỏe!

Visa F-2-R chính sách mới, cơ hội mới dành cho du học sinh.

Visa khu vực đặc biệt hóa là chính sách mới của thành phố, tỉnh thành, cục xuất nhập cảnh kết hợp với các trường học. Nhằm thúc đẩy dân số ở những vùng ít dân ở và tạo điều kiện cho các bạn du học sinh có thể cư trú lâu dài. Ngày hội chợ triển lãm việc làm ở Kimje diễn ra các bạn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đến nộp hồ sơ và phỏng vấn trực tiếp. Sau khi phỏng vấn đã có rất nhiều bạn đã đỗ phỏng vấn và có thể đổi sang visa F-2-R visa khu vực đặc biệt hóa có thể sống tại Hàn 5 năm và sau đó có thể đổi sang visa cư trú dễ hơn. Du học sinh trường đại học Jeonju đã đỗ vào hai công ty ở Kimje là công ty Daesung và công ty Sejong và vào ngày 9/12/2022 nhà trường đã đưa các bạn học sinh đỗ phỏng vấn đến các công ty để nói chuyện và ký hợp đồng. hồ sơ của các bạn du học sinh đang trong quá trình xét duyệt và nay sau đó sẽ đổi visa ngay sau khi nhận được sự xét duyệt của ủy ban phường.

Chúc mừng các bạn sinh viên đã đỗ phỏng vấn và chúc các bạn thành công trên con đường mới!

2023학년도
전주대학교
정시 모집

전주대학교 유튜브

원서접수

2022. 12. 29.(목) 09:00 -
2023. 1. 2.(월) 18:00

*정시모집 최종 선발인원은 12. 28.(수) 20시 이후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주대학교와 함께 다시 꿈을 말하다

서로 다른 시공간에 놓여 있던 우리는
기존의 제약을 넘어 무한한 내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일상을 다시, 이야기 합니다.
전주대학교가 함께합니다.